

해외리포트<sup>1</sup>

## 뉴질랜드 마켓 현황 및 시사점

윤정미 총남연구원 연구위원

[그림 1] 뉴질랜드 지도

자료 : <http://blog.daum.net/oktorn>

### 뉴질랜드 일반개요<sup>1)</sup>

뉴질랜드(마오리어:Aotearoa)는 태평양 남서부에 위치한 두 개의 큰 섬(남섬과 북섬)과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1930년대부터 복지 국가가 확립되었고,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였다가,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영국의 유류 경제 공동체 가입으로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졌다. 인구 구성은 대부분 유럽계이고, 가장 큰 소수민족인 마오리족, 아시아인, 그 다음으로 태평양 제도민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 마오리어, 뉴질랜드 수화기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는 대부분 마오리족과 초기 유럽 정착민들에 가서 파생되었다. 1840년 마오리족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뉴질랜드의 통치권을 영국에 양도하는 와이팅이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852년에 뉴질랜드 정부가 들어섰다. 영국의 식민화가 진행됨에 따라 마오리족과 영국 간 분쟁이 발생, 1843년~1870년 사이 두 차례의 마오리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영국은 마오리족에 대해 유화정책을 펴서 인종분쟁이 약해지고 마오리족의 영국화가 시작되었다. 뉴질랜드는 마오리족과의 공존관계 설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고, 1907년 영국의 자치국이 되었다가 1947년 11월 25일 독립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는 총 5,350명이 영국 연방으로 참전하였고, 우리나라와는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뉴질랜드 인구는 약 470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150만 명이 뉴질랜드의 수도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의 약 14%가 원주민인 마오리족이며, 그 외 폴리네시아계와 아시아계가 각각 6%를 차지하고 있다.

1) <https://ko.wikipedia.org/wiki/뉴질랜드>, 위키미디어, List of cities in New Zealand

[표 1] 2017년 6월 현재 인구 및 면적

순위 (인구)	도시 지역	인구	면적(km <sup>2</sup> )	인구밀도 (사람/km <sup>2</sup> )
1	오클랜드	1,534,700	1,086	1,413.20
2	웰링턴	412,500	444	929.1
3	크라이스트 처치	396,700	608	652.5
4	해밀턴	235,900	877	269
5	타우랑가	137,900	178	774.7
6	네이피어 - 헤이스팅스	133,000	375	354.7
7	다니든	120,200	255	471.4
8	파머 스톤 노스	85,300	178	479.2
9	벨슨	66,700	146	456.8
10	로투아	58,800	89	660.7
11	황가 레이	57,700	133	433.8
12	뉴 플리머스	57,500	112	513.4
13	인버 카길	50,800	123	413
14	황가 누이	40,300	105	383.8
15	기스본	36,600	85	430.6
계		3,424,600	4,794	714.35

자료 : 위키피디아

### 오클랜드(Auckland markets)<sup>2)</sup>

#### 01\_마켓의 형성

뉴질랜드에서는 토요시장 또는 선데이마켓이라 하여 각 지역별로 빈 공터나 공용 주차장 등을 이용하여 지정한 요일에 마켓을 열고 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시장은 거의 사라지고 대형 마트만 있었지만 전문가 및 활동가들에 의해 유럽과 아시아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crafternoon tea market, Annamaria Berek Orewa Market 등 많은 시장들이 뉴질랜드 곳곳에 들어서 있다.

2)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1/67131](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1/67131)

<http://www.aucklandmarkets.co.nz/>

<https://www.newzealand.com/kr/auckland/>

<http://www.aucklandmarkets.co.nz/>

02\_마켓의 주요 판매품

마켓의 주요 판매 품목은 유기농 농산물, 쥬, 꿀, 빵, 중고물품 등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개념으로 공예품 등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파머스 마켓에서는 신선한 유기농 농산물의 직거래는 물론 현지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을 먹어 볼 수도 있다.

03\_마켓의특성

오클랜드 마켓은 교외, 농촌, 그리고 더 작은 지역까지 오클랜드 전역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가판대 5개의 작은 규모부터 가판대 200개의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아채를 재배하고, 공예, 페인트, 요리, 보석 등을 만들고 커피를 마시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장이 50여 개 이상 있다.

뉴질랜드는 재활용이 활성화 되어있어 우리나라의 벼룩시장과 같이 사용했던 물품들을 판매하는 시장이 많다. 또한, 수공예품이 많아 예술 공예 시장이 발달했는데, 제품을 만든 장인과 소비자간 직접 거래하기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수제 음식 등을 먹을 수 있으며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농산품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신뢰가 형성된다는 점이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다. 뉴질랜드의 시장은 지역민과 예술인의 만남의 장이며, 뉴질랜드 문화의 한 부분이며, 뉴질랜드의 생활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04\_시장 매니저

Craftiemoon Tea 마켓의 시장 매니저

Craftiemoon Tea 마켓 매니저는 처음에는 가판대 상인이었다가 현재 매니저로 활동 중이다. 이 마켓은 2009년 9월 오픈되었고, 2011년 3월, 매니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능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 매니저는, 좋은 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고객과 상품판매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시장 매니저의 경우 시 각적으로 상품 디스플레이에 경향이 많기에 이를 바탕으로 상품화하여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장 주변의 양호한 도로 및 교통 흐름 체계를 정비하고 깨끗한 환경 및 정리된 시장 출을 유지하며,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Anamaria Berek Orewa 마켓의 시장 매니저

Anamaria Berek Orewa 마켓 매니저도 오레와 마켓의 상인이었다가 시장 관리자가 된 것이다. 시장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장이 철거되고 신축되어진 공간에서 뉴질랜드 공예품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 시장을 특화하기 위해 라이브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시장으로 기획하여 발리 댄서, 홀라 댄서, 독특한 악기 밴드, 광대 등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무대를 조성하였다. 고객과 구매자 간의 대화를 중시하고 활기차고 화려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비즈니스 단체와 의사소통부터 장소,

언론, 협의회 규칙 및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었다.

Sarah McLeod, Devonport Craft 마켓의 시장 매니저

Sarah Thorne(Parnell Farmers Market & Craft Harvest Market Manager)는 노스쇼어(North shore) 지역 시장이 다른 지역과 각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태본 포트 크래프트 마켓을 설립하였다. 시장에서 상인으로 2개월간 활동 한 후 시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두 명의 매니저였다가 현재 Sarah 단독 매니저로 운영 중이다. 시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오클랜드 마켓포드에 수 공예품 시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많은 열정 및 시간과 돈을 시장 마케팅에 투자하고 좋은 판매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웃고 있는 판매자의 얼굴을 성공 요소라고 생각하고, 판매자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보유 하고 있었다. 흥미진진하고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고객 유치의 성공 요인으로 보였다.

05\_오클랜드 마켓 현황

오클랜드는 Central Suburbs, West Auckland, North Shore, Further North, South Auckland, Further South, East Auckland로 구분되어 진다.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마켓 오픈 변동사항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클랜드에 조성되어 있는 토요마켓 및 일요마켓의 구역별 이름과 주요품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홈페이지 관리 운영 (http://www.aucklandmarkets.co.nz/)



##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Matakana Farmers Market)- “Zero Waste Matakana”<sup>\*)3)</sup>

### 01\_마카타나 마을 소개

마타카나는 뉴질랜드 북쪽의 Rodney District에 있는 작은 마을로 많은 포도농장과 파머스 마켓으로 유명한 마을이며 오클랜드 중심지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한다. 마타카나는 일년 내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다. 토요일마다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과 마타카나 마켓이 열리고, 매년 마카타나 학교의 Gala 축제(수천명이 모이는 매우 큰 축제), Music Mountain Matakana 여름철 음악 행사와 11월 Seagull Raft 경주 대회(영국 Seagull 지원)가 개최되고 있다.

파머스 마켓 주변으로 마타카나 마켓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14시에 공예품 중심으로 열리며, 마을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제라지 세일(communitary garage sale)이 토요일에 열린다. 이 때문에 평일에는 조용하다가 토요일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 북적거리는 마을로 변모한다.

그림 3)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 위치도(구글지도)



3) <http://matakanavillage.co.nz/>  
<https://www.eventfinda.co.nz/2017/matakana-village-farmers-market/auckland/matakana>  
<http://junctionmag.co.nz/the-future-is-zero/>  
<https://en.wikipedia.org/wiki/Matakana>

그림 4) 마타카나 마을에서 토요일마다 community garage sale(임문 촬영)



### 02\_마타카나 파머스 마켓

오클랜드에 위치한 마타카나 마켓은 오클랜드 중심지에서 약 50분 거리에 있으나, 오클랜드 북부의 유명하고 인기 있는 관광지로서 시장이 열리는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이다.(시장 관리자 : Fiona McGeough, markets@matakanavillage.co.nz, 021-0225-5828)

###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 품목

마타카나 마켓에서는 신선한 유기농 농산물, 과일, 야채, 맛있는 장인 제빵, 이탈리아 소시지, 유기농 초콜렛, 잼, 치즈, 와인, 주스, 수제케익, 꽃, 직접 구운 과자, 고급 와인, 올리브 오일 등과 뉴질랜드 대표 특산물인 마누카 꿀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조리된 음식과 브런치, 고 품질의 고기와 현지 수제 맥주 등도 판매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은 신선한 식품과 장인들의 수공예품으로 매우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 시장 조성 및 변천 과정

마타카나 빌리지 파머스 마켓은 2004년 조성되었으며, 레인보우 밸리 농장 노점상인 Trish Allen과 Joe Polaischer가 쓰레기 제로에 대한 운동을 시작하여 모든 쓰레기를 농장으로 보내고, 퇴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Trish Allen과 Joe Polaischer가 상인을 그만두고 시장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되면서 옥수수컵, 대나무 찻시, 남긴 등이 사용되었고 쓰레기 제로 정신도 사라졌다. 그러던 중 피오나키 시장 매니저로 오면서 다시 쓰레기 제로 시장을 조성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공식적인 쓰레기 제로 이벤트를 시도하여 쓰레기의 90%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 특성(마타카나 시장은 쓰레기 제로 시장 목표)

수상 경력이 있는 바리스타 커피, 다양한 브런치 요리 등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고 강을 끼고 있는 경치로 파머스 마켓은 주말 방문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 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고 있었다. 라이브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을 매우 활기 넘치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마을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기 위한 유기농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쓰레기 제로 시장 조성을 성공시키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시장매니저의 역할

시장매니저는 예전 시장에서 시도되었던 ‘쓰레기 제로’ 정신을 다시 추진하고 있었고, ‘쓰레기 제로 이벤트’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을 시도하여 시장 내 쓰레기의 90%를 감축시켰다. 마타카나에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 250km 떨어진 Tuakau 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비용과 시간 문제가 수반되기에 쓰레기 제로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다. 지방의회가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시장 매니저는 이를 위해 레드 비치 비즈니스와 퇴비사와 연계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다. 현재 시장에는 쓰레기 줄이기 기금 15,000달러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또한 쓰레기 제로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보여주는 교육용 쓰레기 쇼 프로그램,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림 5]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왼쪽 촬영)

03\_ 마타카나 마켓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는 마타카나 마켓은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과 다르게 수공예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장이 운영되는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이다.

[그림 6] 마타카나 마켓 페이스북 홍보용 사진



자료 : <https://www.facebook.com/MatakanaMarket/>

[그림 7] 마타카나 마켓 모습(왼쪽 촬영)



오를랜드 나이트마켓<sup>4)</sup>

01. 개요

뉴질랜드는 아식문화나 배럴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이트마켓을 통해 아식문화와 다문화음식을 접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는 오를랜드 지역에 7개, 해밀턴 지역에 2개를 포함하여 전체 9개의 나이트마켓이 운영 중에 있다. 아시장은 월요일을 제외 한 화요일, 일요일까 지 운영되고 대부분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열린다. 나이트마켓은 오후 5시(5시 30분)에서 밤 11시(12시)까지 운영 된다.

02. 조성 과정 및 특성

뉴질랜드 아시장의 시작은 2010년 Pakuranga에서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정가시장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오를랜드는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아시장을 통 해 다른 문화권의 음식을 경험 할 수 있고, 음악과 공연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로 인식되 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엄격하게 식품하가를 시행하고 있기에 식품 노점은 위생과 안전한 음식이 보장 되어야만 하가를 받을 수 있다. 오를랜드 지방 의회의 위원회에 식품관리 계획을 신청하면 된 다. 음식 판매의 경우 하가가 매우 까다로우나 그 외 공예품 및 일반 상품 판매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하가가 쉽고 매대 임대비용도 저렴하다.

03. 규정 및 규칙

매대의 크기는 2.5m×4m로 차량 주차 공간과 동일하며, 식품 매대는 식품관리위원회에 등 록이 되어야 한다. 최소 계약기간은 없지만 아시장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매대가격은 푸 드 매대의 경우 100달러부터 250달러로 비교적 비싼 편이며, 일반 매대의 경우 30달러에서 80달러로 푸드 매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아시장 구분		일반 매대 가격	푸드 매대 가격
화요일	(오를랜드)Mt Wellington – Countdown 대형마트 주차장	\$30(24,000원)부터	\$100(80,000원)부터
수요일	(오를랜드)Botany – Hays 센터 주차장	\$40(32,000원)부터	\$120(96,000원)부터
목요일	(오를랜드)Henderson – Kmart 대형마트 주차장	\$40(32,000원)부터	\$180(144,000원)부터
금요일	(오를랜드)Paptotetoe – Kmart 대형마트 주차장	\$50(40,000원)부터	\$250(200,000원)부터
	(해밀턴)The Base(쇼핑센터) 주차장	\$80(64,000원)	\$120(96,000원)부터
토요일	(오를랜드)Pakuranga – Warehouse(쇼핑센터) 주차장	\$50(40,000원)부터	\$250(200,000원)부터
	(해밀턴)Kmart Bryce Street	\$30(24,000원)부터	\$180(144,000원)부터
일요일	(오를랜드)Glenfield – Countdown 대형마트 주차장	\$40(32,000원)부터	\$200(160,000원)부터
	(오를랜드)Sylvia Park – PK Furniture 주차장	\$80(64,000원)	\$100(80,000원)부터

[표 2] 나이트마켓 장소 및 가격

※ \$는 뉴질랜드 달러이며 괄호안의 금액은 800원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매대 사용자 규칙

- 암고물, 담배, 약품의 판매 및 소비를 엄격히 금함
- 불법, 위조, 위조, 도난 등의 행위는 판매를 금함
-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리 지르고 시선을 파괴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
- 작업은 항상 스텝의 지시에 따라 협력하고 준수
- 매대를 설치하기 전에 대여/공간 요금을 지불해야 함
- 스텝은 자신의 재량으로 매대 진입과 해체를 거부할 수 있음
- 매대 주인은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함
- 모든 용기는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함

판매품목

주요 품목은 다양한 이민자들에 의한 티문화 음식이고, 신선한 채소 및 과일, 향신감, 의류, 수공예품, 음악과 공연을 볼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오를랜드는 밤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일반 상가 및 음식점의 경우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쇼핑물과 연 계된 공간에서 열리는 나이트마켓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음식 매대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매대 허가 규칙이 까다로우면서 높은 수익을 높일 수 있고, 공예품 및 일반 판 매 매대는 하가는 쉬우나 수익률이 높지 않다.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매대도 있다.



[그림 8] 나이트마켓 홈페이지

4) <http://aucklandnightmarkets.co.nz/>



[다림 이 글렌필드 나이트마켓 모습(영문 촬영)]

###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구 빅토리아 파크 마켓) - 도시재생 성공사례<sup>5)</sup>

#### 01\_개요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는 오클랜드 도심까지 약 8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적 접근성 및 인접지역의 관광객 및 방문객이 많은 지역이다.

#### 시설 및 판매품목

현재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 구 빅토리아 파크 마켓)에는 갤러리, 워크숍, 스튜디오, 사무실, 식당 및 소매점, 체육관,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예술과 공예품, 기념품, 패션, 가정용품, 보석 및 갤러리, 선물, 스포츠웨어뿐 만 아니라 오클랜드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입점 되어 있다.

5) <http://media.newzealand.com/ko-kr/story-ideas/quick-new-zealand-facts/>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Victoria\\_Park\\_Market](https://en.wikipedia.org/wiki/Victoria_Park_Market)

<http://victoriaparkmarket.co.nz/>

오클랜드 시의회, Heritage 뉴질랜드, Wikipedia, 현장 방문

#### 조성 및 발전과정

건물의 부지는 원래 Freemans Bay의 일부였다. Freemans Bay는 1870년대 후반에 매립되어 다양한 상업 및 주거용 건물들이 해안 주변으로 조성되었다. 1905년~1918년 오클랜드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벅돌 공장 건물(38m 높이의 굴뚝 포함)이 건설되었는데, 1960년대까지 폐기물 저장소와 소각장으로 사용되다가 1972년에 폐쇄되어 건물은 개인 세입자들에게 임대되었다.

[다림 101 건물 2층 연결통로의 핸드페인팅 거리(영문 촬영)]



오클랜드 시의회는 복합 단지를 철거 할 계획이었지만 공개적인 캠페인을 통해 시장 및 소매 단지로 개조되었으며, 1983년과 1990년에 현재의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1984년 Victoria Park Market Ltd가 단지를 구입하여 2010년 이 복합단지는 소매 상가로 재개발 되었다. 1983년부터 상가로 운영된 빅토리아 파크 마켓은 현재 역사적인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40개가 넘는 상점, 카페 및 레스토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 02\_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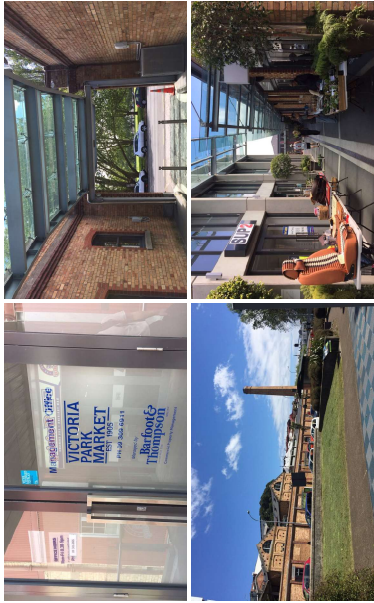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에서는 뉴질랜드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984년 유명한 핸드페인팅 거리가 조성되어 Edmund Hillary 경 , Dame Kiri Te Kanawa 경 , Billy T James 경 , John Walker 경 , Rachel Hunter 경을 비롯한 뉴질랜드 유명인들의 손자국과 발자국을 볼 수 있다.

2016년 4월까지 공예품, 기념품, 의류시장 등이 입점 된 소매 단지였다가 2017년 3월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로 이름이 변경되어 2017년 6월 주말 시장이 다시 열렸다. 새로 재개발된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 건물과 구역은 고급 시장 및 세련된 유적지에 있는 소매점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선물, 기념품 및 뷰티 스토어에서부터 카페, 레스토랑 및 바가 입점 되어 세련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춘 도시형 마을로 변모되었다. 오클랜드의 상징적 유적자인 큰 벅돌 굴뚝이 있으며, 건물 가운데 캐노피가 있어 방문객에게 좋은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 초기 빅토리아파크 마켓 모습  
(빅토리아파크 입구 전시 사진  
방문 촬영)

[그림 12] 빅토리아 파크 빌라지 전경·내부 및 상가 사무실(방문 촬영)



## 시사점

### 01\_문화와 생활을 즐기고 볼 수 있는 마켓으로 활성화

약 10년 전만 해도 시장은 거의 사라지고 대형마트에 의존했던 뉴질랜드는 현재 유럽과 아시아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곳곳에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오클랜드는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들이 많기에 아시장을 통해 다른 문화 음식을 경험하고 음악과 공연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 02\_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의 수재음식, 수공업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뉴질랜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도요마켓 및 선데이마켓에서 수공업품 및 버릇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며, 친환경 유기농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과 수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어있다. 시장은 뉴질랜드 문화의 한 부분으로 뉴질랜드 생활의 한 면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맛 보는 장소이며, 뉴질랜드 공예품 및 기념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지금 뉴질랜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 03\_시장 특화 및 매력적 공간으로 조성 노력

'쓰래기 제로'시장 조성 및 시장 주변의 양호한 도로 및 교통 흐름 체계를 정비, 깨끗한 환경 및 정리된 시장 홀을 유지하며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라이브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특화된 시장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지역 비즈니스 단체와 의사소통부터 장소, 인턴, 협의회 규칙 및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었고, 흥미진진하고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는 공간조성이 고객 유치의 성공 요인으로 보였다.

### 04\_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마켓 오픈 변동사항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시장마다 시장 매지너 활동을 통한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 의회에서 엄격하게 식품 허가를 시행하고 있어 식품 노점은 위생과 안전한 음식이 보장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다. 허기는 오클랜드 지방 의회의 위원회에 식품관리 계획을 신청하면 된다.

### 05\_시장 매니저에 의한 운영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와 공유가 이뤄지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장은 브랜드화 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화가는 추세이다.